

< 베트남 >

- 국 명 :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 면 적 : 약 331,210 km² (한반도의 약 1.5배)
- 기 후 : 아열대(북부), 열대몬순(남부)
- 수 도 : 하노이(Hà Nội)
- 인 구 : 약 97,040,334 명(2018 기준)
- 민 족 : 베트남(85.7%), 태국(1.8%), 몽골(1.5%), 외국인 및 기타(11%)
- 언 어 : 베트남어, 영어, 크메르어, 기타
- 환 율 : Vietnamese Dong(VND)23,234.71 = USD \$1(2020년 2월 기준)
- GDP : USD \$2,412억(2018년 기준, 세계 45위)

□ 베트남 주요 동향

- **(ASEAN 시장의 전략적 중요성)** ASEAN은 높은 인구비율, 풍부한 천연자원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제성장률 보다 상회하는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17년부터 19년까지 연평균 5.7% 성장이 전망. 특히, 정부는 기존 4강(한·미·중·일·러) 수준의 외교관계를 ASEAN으로 구축하는 신남방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중국에 이은 전략시장으로 급부상
- **(ASEAN 신 전자산업에 대한 협력강화)** 특히, 한-ASEAN 상의 대표들로 구성된 한-ASEAN 기업인협의회(Business Council)에서는 '16년 8월 업종별 분과위원회(사물인터넷, 3D프린팅, 식품, 화장품 등) 성립으로 국가별 상이한 업종별 시장정보, 검사통관검역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과 ASEAN 기업 간 협력이 더욱 구체화 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으며, 사물인터넷, 3D프린팅 등 스마트 신 전자HCT 제품에 대한 교류협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해당 시장의 한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 확보에 따른 큰 폭의 수출 확대 기대 및 스마트 정보통신 기기 등이 수출 유망품목
- **(ASEAN 시장 중에서 베트남)** 스마트 기기의 경우 건설, 통신, IT 인프라 개발을 위해 정부가 투자를 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스마트홈, 스마트시티에 대한 공공민영 프로젝트 추진 및 온라인 B2C 스마트홈 제품 마켓 시장의 시장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베트남을 타겟시장으로 선정함. 특히, ASEAN 중에서도 베트남의 경제 성장률은 작년 기준 7%로 고성장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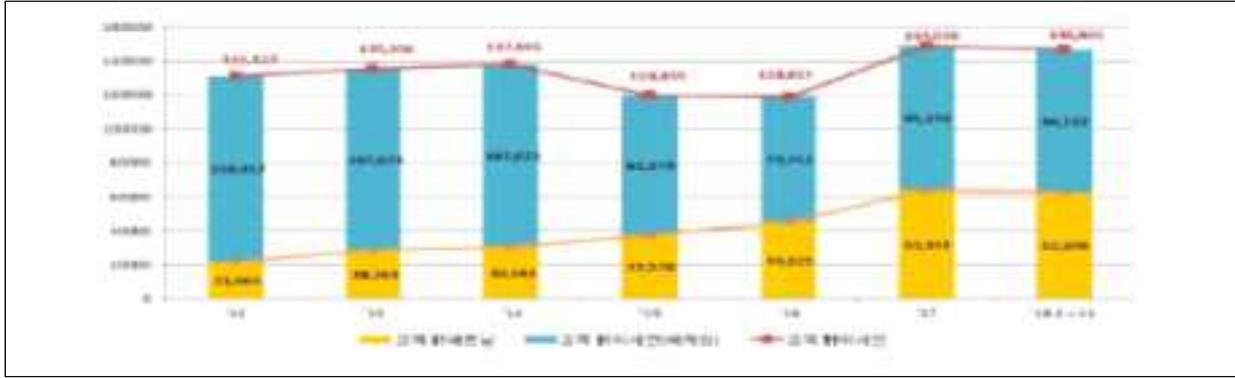
< 2013-18 베트남 GDP 성장률 (% , 전년 대비)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상반기
GDP성장률	5.42	5.98	6.68	6.21	6.81	<u>7.08</u>

자료원 : Worldbank

- **(베트남 시장의 중요성)** 베트남 주요 소비계층인 20~49세까지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중산층 인구비중이 전체 인구의 4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 전체 인구의 약 34%를 차지하는 15~34세의 젊은 층이 베트남 내수시장의 핵심 소비계층으로 부상하며 이들의 주요 소비품목인 IT·생활가전제품 시장도 빠르게 성장. 베트남 정부는 ‘2020년 통신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계획’을 통해 주요 국정과제인 인프라개선을 해결하고자 함. 자금 중 70%를 통신 기반시설 개발에 투자를 계획하고 이에 따른 민,관의 활발한 투자에 따라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과 연계한 스마트 홈 기기, 스마트 시큐리티, 헬스케어 기기 등 국내 스마트 기기 최대 수출 기회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베트남 전자기기 시장 선도)** 한국은 베트남 전자산업의 1위 투자국이며,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베트남 진출로 많은 한국 협력업체들이 베트남으로 진출함. 한국과 베트남은 전자산업에서 우호적인 교역 관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18년 한국의 대 베트남 전자제품 수출규모는 239억 3,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8.8% 상승함. 이러한 상승 국면속에서, 베트남 소비자 가전 전자제품은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 한국의 전자제품에 대한 수요가 큰 상황으로 한국형 “스마트홈 관련 IoT 기반의 전기전자제품”의 시장 확대가 예상
- * 베트남 진출 ICT기업 수 : (‘15) 544 → (‘16) 670 →(‘17) 818, 연평균 23% 증가
- **(베트남 수출 및 FTA 체결 효과)** 2018년 1월 기준, 한국의 대 베트남 총 교역액은 626억불로 전년 동기 대비 7%증가하며 베트남은 한국의 4위 교역 대상국 유지. FTA 발효 후 베트남은 한국의 ASEAN 최대 교역 대상국을 유지하고 있으며 FTA 발효 후 대 ASEAN 교역규모 증가세 대비 대 베트남 교역 증가세가 높고, ASEAN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

<한-ASEAN, 한-베트남 교역 동향>



자료원 : KOTRA,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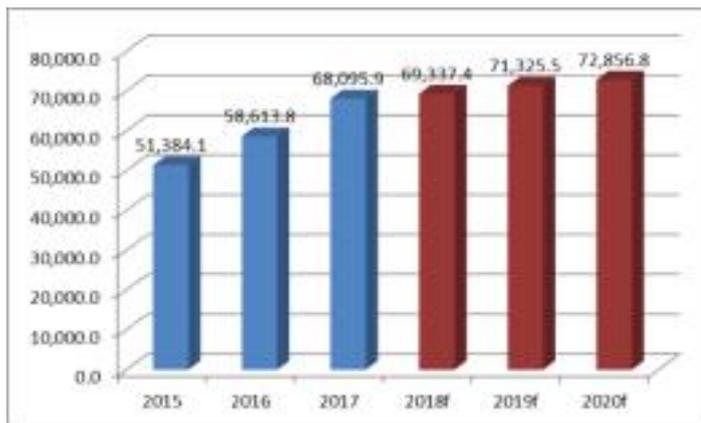
□ 베트남 주요 ICT 산업 현황

○ 베트남 가전제품 시장

- 글로벌 시장 리서치 기관인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18년도 베트남 가전제품 판매액은 69조 3,000억 동(약 31억 달러)에 이르렀고, 2015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성장 중이며, 2020년 까지 베트남 가전제품 시장은 안정적인 성장이 기대됨

<베트남 가전제품 판매액 동향>

(단위: VND 십억)



자료원 : 유로모니터

○ 베트남 스마트홈 시장

- 시장조사기관인 Statista에 따르면 2018년도 베트남의 스마트홈 시장은 총 4650만 달러 규모로 가구 수로는 약 1만6000가구가 스마트홈을 사용 중임. 2019년도 베트남 스마트홈 시장규모가 8,250만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2023년까지 매년 연평균 5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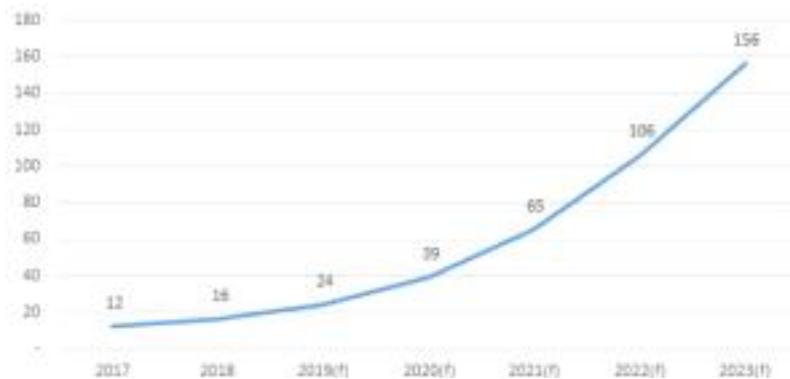
<베트남 스마트홈 시장 동향>



자료원 : Statista

- 베트남 내 스마트홈 이용 가구수는 2017년도 1만2,000가구, 2018년도 1만8,000가구로 집계되었으며, 2019년도에는 2만4,000가구가 스마트홈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

<베트남 스마트홈 가구수 동향>



자료원 : Statista

- 베트남의 스마트홈 시장은 인근 국가인 싱가포르 등과 비교했을 때 크게 뒤쳐져 있으며, 낮은 국민소득으로 높은 초기 설치비용을 감당할 만한 소비계층이 제한적인 상황이나 현지 소득 중상위 계층과 외국인 부동산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고급형 아파트 프로젝트는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외 스마트 기기 업체들과 아파트 시행사와의 합작 프로젝트 또한 성행하고 있어 향후 수요는 지속될 예정

○ 베트남 스마트시티 시장

- 베트남은 정부 주도의 ICT 산업 발전 계획을 진행중이며 그중에서도 스마트시티를 적극 추진 중임. 2018년 8월 2030년 비전을 향한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개발 제안을 승인했으며, 이는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2020년 개발 기초 법안 수립하고 2025년 파일럿 프로젝트 수행을 추진할 예정임.
- (하노이) 베트남 RGB 그룹과 일본 무역회사 Sumitomo가 하노이 근교에 약 42억 달러에 달하는 스마트시티를 건설할 계획임. 조성될 스마트 시티 면적은 약 270헥타르이며, 약 7,000여개의 아파트가 2022년에 완공을 목표로 첫 번째 단계에서 건설 착공이 될 것이며, 두 번째 단계는 회사 및 상업 시설의 건설 프로젝트 이후에는 다른 도시와 스마트시티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항 및 기차역 건설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 해당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는 2028년에 최종 완공을 목표로 함
- (기타) 베트남은 대형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 수요가 높은 곳으로 주요 도시 내 스마트타운(town) 개발 프로젝트도 많이 생겨나고 있음. 베트남은 아직 스마트시티 개발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 정부 및 민간 기업들은 베트남 스마트시티 개발을 위한 경험을 공유하고 서비스를 개발 노력이 요구됨. 특히 대규모 도시 개발 및 IT 서비스 구축에 경험이 많은 우리 기업의 참여가 기대됨